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녹) 연중 제 29주일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율리아

(녹) 연중 제 29주일 (23. 10. 22.)

* 오늘 전례

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선교 사명을 깨닫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이사야서 2,1-5):

1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2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3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4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5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 제2독서(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0,9-18):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9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0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11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12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13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4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15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16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18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갔다.”

• 복음(마태복음 28,16-20):

그때에 16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18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화답송

-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 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깊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깊이 깨닫고, 그 신비에 온전히 참여하며, 민족들의 복음화에 힘쓰게 하소서.
2. 경제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이 땅의 경제인들을 주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어, 기후 이상과 생태 위기에 민감하게 하시며, 이익에 앞서 가치 있는 인간 삶을 위하여 경제적 투자를 하도록 도와주소서.
3.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로자이신 주님, 감옥에 갇힌 이들을 진실된 회개로 이끌어 주시어,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며, 범죄의 피해자들과 그들을 돕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위로와 힘을 주소서.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생활 공동체를 사랑으로 이끄시어, 주님께서 주신 본디 모습을 온전히 가꾸며,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할 수 있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 성가 ♪

- 입당 : 63 (온세상에 전파하리)
- 봉헌 : 511 (미약하온 우리제물)
- 성체 : 166 (생명의 양식)/181 (신비로운 몸과 피)
- 파견 : 450 (만방에 나아가서)

공지 사항

♣ 모임/회의

- 1구역 구역모임 : 오늘 주일미사 후
- * 말씀 나누기 후 함께 식사 예정
- * 장소: 오라토리오

♣ 봉사자

	오늘 주일(22일)	다음 주일(29일)
제1독서	강소현 율리아	이두혁 세라피노
제2독서	김남옥 아네스	이정혁 루카
복사	노부야이초 가티안 박동현 요한보스코	엄채운 엘리사벳 변가인 헬레나
계단·화장실	강소현 율리아	이두혁 세라피노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221.70 • 교무금 € 300.00

♣ 여기는 어디인가? ♣

무엇을 위해 여기에 왔을까?
무엇 때문에 태어났을까?
여기는 어디인가?
현재를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죽음이란 어떤 상태일까?
이 당연한 의구심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다면 인간으로서
어딘가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이데 요코의《깨달음이 뭐라고》중에서 -